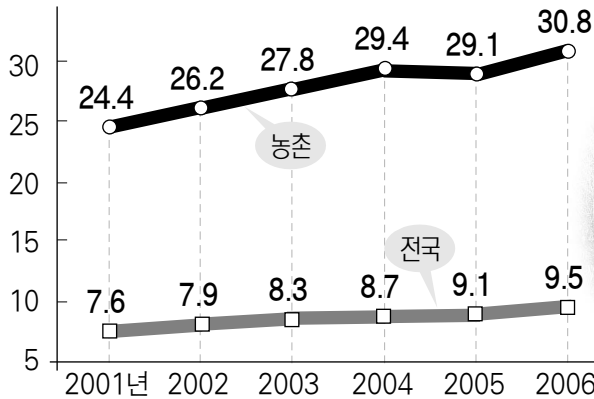


고령화율(65세 이상 인구비중) 비교

(단위:%)



숨은그림찾기 정답 ⑥2



편집후기



UR이후 WTO, FTA를 넘나드는 속에서도 농가 실질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었으며 도농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최근의 통계분석은 우리를 아연케 한다. 누구를 위한 용어들의 현란함인가? 이래서는 안 된다. 그럼에도 지절은 어김 없이 봄의 훈풍이 살랑인다. 참으로 딱한 것이 농심이다. 하기가 오비삼척(吾鼻三尺)이다. 마음의 훈풍(?)이 일기까지는 한참이 될 것 같다. 그래서 '일각(一刻)이 여삼추(如三秋)' 다.

독자의 글을 받습니다.



- ▶ 이 책지는 농약안전사용 및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해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무상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. 받으신 분은 서로 돌려 읽으시어 농약안전사용 및 올바른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애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경험담이나 지도수기, 산문, 콩트 등 투고를 환영합니다. 투고한 원고 중 뽑힌 글은 본지에 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. 원고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 접수된 원고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.